리서치센터

Strategist 김재호 CFA
(02)2009-7197
kimjh1@leading.co.kr

미국, 유럽 (R.A) : 박지미
(02)2009-7059
jmpark1@leading.co.kr

아시아 (R.A) : 이재완
(02)2009-7064
jwlee@leading.co.kr

Weekly Global Market 2014. 05.26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rturday
			31	1 미3월 개인소득	2 미 4월 실업률	3
4	5 미4월 ISM 비제조업지수	6 미3월 무역수지	7	8 중4월 수출	9 한5월 금통위	10 중 4월 M2
11	12 일 3월 경상수지	13 미4월 재정수지/ 중4월 산업생산	14 미4월 생산자물가	15 미 4월 소비자물가 / 산업생산	16 미4월 주택착공건수	17
18	19	20 한4월 생산자물가	21 일5월 BOJ 금정위	22 미4월 기존 주택판매	23 미4월 신규 주택판매	
25	26 미국 휴장	27 미4월 내구재 주문	28	29 미1Q GDP 예비치 /4월 개인소비지수	30 미 4월 근원 PCE 물가 / 5월 시카고 PMI	

LEADING
리 딩 투 자 증 권

LEADING

Weekly Market Insight

2014년 5월 26일

한국시장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지속 전망

- **S&P500 1900P 돌파 사상 최고치 경신 불구 이머징 시장 상대적 강세 지속 전망**

예상수준 FOMC 회의록 내용, 주택시장 개선세 확인되며 S&P500 최고치 경신

전주 공개된 4 월 FOMC 의사록을 통해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금리 인상은 빠른 시기에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은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채권시장 국채금리는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하여 상승한 반면, 주식시장은 빠른 시기에 인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상승세를 보였다. 물론 전전주에 이어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주택시장 지표도 이러한 채권약세, 주식강세의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고점 경신에도 불구 고평가된 미국 주식형 ETF 자금 유출

하지만, 지난 주 미국 ETF 시장 자금흐름은 장기 국채 관련 ETF 에는 50 억불 이상의 자금 유입세가 지속된 반면, 주식형 ETF 는 러셀 2000 중소형주 ETF(IWM)와 S&P500 ETF(SPY) 등에서 각각 37.5 억불, 24.6 억불의 자금유출이 일어나 미국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투자자들의 태도 변화를 읽을 수 있어 미국 주식시장이 현재 주가 수준에서 탄력적인 랠리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이머징시장 상대적 강세 전망

유럽주식시장도 MSCI 유럽 지수의 PER 이 14 배를 상회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아진 상태이나, 5 월들어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지표 개선과 함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상승탄력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머징 시장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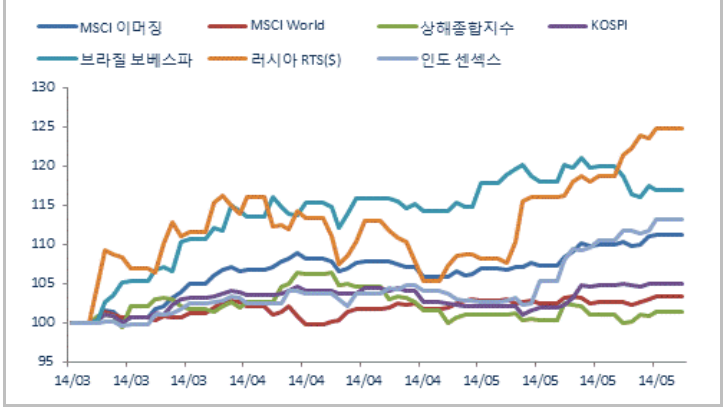
3/14이후 이머징시장 상대적 강세. 동기간 중 한국, 중국 부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던 3/14 저점 이후 선진국(MSCI World)시장은 3.4% 상승에 그친 반면 이머징시장은 11.2% 상승했다. 동 기간 중 브라질(17%), 인도(13%), 러시아(25%)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한국(5%)과 중국(1.5%)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이는 브라질, 인도의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 및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예상보다 약했던 점 과 지난 주 푸틴의 중국 방문기간 중 타결된 러시아와 중국 간 체결된 2019 년부터 30 년간 380 억 m^3 규모의 총 4000 억불에 달하는 천연가스 공급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 전망

한편, 지난 주 미국 ETF 시장에서도 EEM(iShares MSCI EM), IEMG(iShares core MSCI EM) 에 각각 6 억불, 3 억불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평가된 이머징시장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어, 지난 주 발표된 중국 지표의 개선세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가 수준을 고려하면 한국시장의 경우 전주말 실시된 우크라이나 대선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자금은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주식형펀드 환매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지수의 추가적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Exhibit 1. 3/14이후 이머징 주요국 주가 등락률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 5 월중 유럽 신용등급 상향조정 국가 현황

구분	평가일자	평가기관	조정전	조정후
포르투갈	05월 09일	Moody's	Ba3	Ba2
루마니아	05월 16일	S&P	BB+	BBB-
아일랜드	05월 16일	Moody's	Baa3	Baa1
그리스	05월 23일	Fitch	B-	B
스페인	05월 23일	S&P	BBB-	BBB

Source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지역별주식시장전망

- **미국**

지난 주 공개된 의사록은 FRB가 금리 인상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상당 기간 금리를 올리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하면서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S&P500지수는 이번주 1.2% 올라 3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다우지수는 0.7%, 나스닥지수는 2.3% 각각 상승했다. 주택 관련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주택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크게 상승했다. 이번 주 발표될 주요 지표로는 미국의 설비 투자 지표로 활용되는 내구재 주문이 있다. 2월, 3월 모두 2.5%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배경에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비용 감소와 저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감소로 기업들의 현금 보유가 증가했고 이는 기업들 간의 M&A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내구재 주문 외에 27일에는 미국 주식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은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가 발표되며 소폭 개선세가 기대된다. 30일 발표될 4월 개인소비지수는 전월 0.9% 상승에서 0.2% 상승으로 하향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행지표에서 최근 소비 시장 개선세가 비춰지고 있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5월 서비스 PMI, 복합 PMI 가 발표될 예정이며 29일에는 1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는데, 한파 영향이 더 반영돼 속보치 전분기 대비 +0.1%를 하회하는 -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 발표될 주택 관련 지표 개선 여부도 주목해야겠다.
26일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로 미국 주식시장은 휴장한다.

- **유럽**

지난 주 유로존 주식 시장은 유럽 의회 선거와 우크라이나 대선 추이를 주시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여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다. 단, 지수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했고, 의회 선거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대해 관망세를 보이기도 해 추가적인 상승세를 막아 Euro Stoxx 600 지수는 0.8% 상승에 그쳤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MSCI유럽의 12M FWD PER가 약 14배로 과거 5년 평균 11.2배에 비해 높고, 지난 주 발표된 업종 대표 기업들이 실적 부진을 보이면서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에서는 6월 5일 통화정책결정을 앞두고 ECB의 통화완화 강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완화적 스탠스에 대한 의지와 기대가 강해 주식 시장을 지지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BOE와 FED와의 스탠스 차이는 유로화 약세를 부추기며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BOE 통화정책회의 회의록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경제 회복 및 주택 시장 과열 등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주 피치와 S&P에서 그리스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의회 선거에서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등 정치적 리스크보다는 경제 펀더멘털의 회복에 집중하는 모습이 기대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럽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소 있는 상황에서 완화적 정책은 지수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 **아시아**

지난 주 5월 HSBC 제조업 PMI가 예상치 및 전월치를 크게 상회하고 증감회가 발표한 IPO 신청 기업 수가 시장 예상보다 적어 상승세를 보여 지난 주 중국 상하이종합 증시 및 항생지수 모두 상승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중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주 발표되는 중국 4월 경기선행지수가 제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가는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방중 후 맺은 4000억 달러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으로 인한 파급 효과와 우크라이나 조기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시아 증시 전체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증시는 BOJ가 일본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

금주 한국증시는 외국인의 신흥국 투자 비중 확대로 인한 매수세 증가와 유럽 및 중국의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 한국증시는 전 주에 이어 강세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신권 환매에 따른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가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만, 6월 초 유럽중앙은행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 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매크로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이머징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세가 이어지고, 한국증시의 상대적 매력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주도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 미주지역 Review

➢ 경제

미국 주택시장은 1분기에 지난 겨울의 이례적 한파와 집값 상승, 주택담보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최근 주택부문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 주 발표된 지표들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지난달 기존주택매매 건수가 연율 기준 465만건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는데, 이는 예상치 469만건을 하회하는 것이나 전달의 0.2% 감소는 웃돌며 올해 들어 처음 상승했다. 4월 신규 주택판매는 43만3000채를 기록해 전달보다 6.4% 증가했으며 당초 시장의 예상치인 42만9000채를 웃돌았다.
대출 여건 개선과 빠른 고용 성장세,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모기지 금리가 주택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건설 증가로 주택 재고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어 주택 시장이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 관련지표는 예상 밖으로 저조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에 비해 2만8000건 늘어난 32만6000건으로 예상치인 31만건을 크게 웃돌았다.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예상 밖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미국의 고용시장 조건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4월 경기선행지수는 0.4% 증가하여 예상치에 부합하고 전월치(0.8%)에는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마 3개월 연속 상승하며 향후 완만한 경기 회복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 주식

지난 주 공개된 FOMC 의사록은 FRB가 금리 인상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상당 기간 금리를 올리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하면서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S&P500지수는 주간 기준 1.2% 올라 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다우지수는 0.7%, 나스닥지수는 2.3% 각각 상승했다.

주택 관련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주택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크게 상승했다. 홈디포, DR호튼, 톨브라더스, 레나 등이 모두 상승하며 모처럼의 주택 지표 개선에 반응했고 이에 따라 경기소비재 섹터가 반등세를 보였다. 섹터별 연초대비 수익률을 보면 경기소비재 섹터가 2.7% 하락하며 10개 섹터중 유일하게 하락했고 유틸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바 있다. 유틸리티와 에너지 섹터는 2013년 주목받지 못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반면 경기소비재 섹터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컸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관련 업체들의 부진이 섹터 수익률을 부진하게 이끌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천천히 진행될 것이고, 충분히 금리가 낮다는 점과 실수요 중심의 잠재 수요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경기 소비재 섹터의 반등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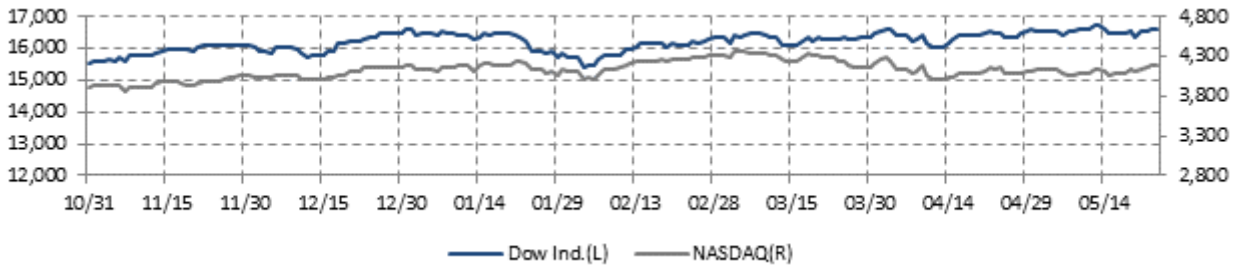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5월 중순 2.47%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후 금주 들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국채 수요가 줄어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주 중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4월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부각 되는 듯했으나,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는 등 글로벌 경제 지표 호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되며 수익률은 전주 대비 0.9bp 상승했다. 연준의 출구 전략 논의와 경제 지표 호조로 달러는 전주 대비 강세를 보였다.

Exhibit 3. 주간 경제 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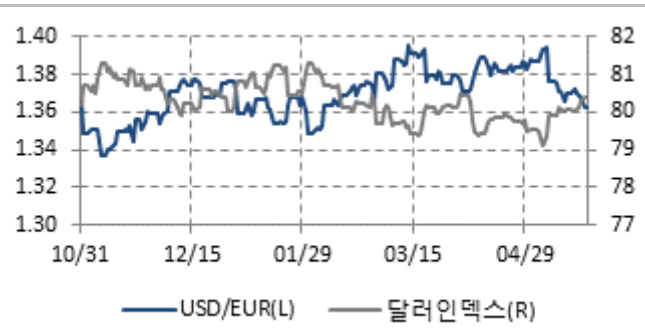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기간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4-05-21	미국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May 16	(%)		0.90	3.60		-2.70
발표	2014-05-22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May 17	(천)	310.00	326.00	297.00	16.00	29.00
발표	2014-05-22	미국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May 10	(천)	2,675.00	2,653.00	2,667.00	-22.00	-14.00
발표	2014-05-22	미국	마킷 미국 제조업 PMI	May P		55.50	56.20	55.40	0.70	0.80
발표	2014-05-22	미국	기존주택매매 (전월대비)	Apr	(%)	2.20	1.30	-0.20	-0.90	1.50
발표	2014-05-22	미국	선행지수	Apr	(%)	0.40	0.40	0.80	0.00	-0.40
발표	2014-05-23	미국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May		7.00	10.00	7.00	3.00	3.00
발표	2014-05-23	미국	신규주택매매 (전월대비)	Apr	(%)	10.70	6.40	-14.50	-4.30	20.90

Exhibit 4. 미국 주요 지수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 달러 인덱스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6. 미국 10 년 채권 수익률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7. 미국 주요 섹터별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AC World	418.4	0.9	2.0	2.7	2.4
다우 종합	16,606.3	0.7	1.5	2.5	0.2
NASDAQ	4,185.8	2.3	2.7	-2.5	0.2
S&P 500	1,900.5	1.2	2.0	3.0	2.8
멕시코 IPC	41,917.9	0.0	4.3	8.6	-1.9
브라질 보베스파	52,626.4	-2.5	2.4	12.9	2.2
S&P 500 에너지	686.9	0.8	0.8	8.1	5.4
S&P 500 소재	305.8	1.4	2.9	4.2	4.8
S&P 500 산업재	460.7	0.8	1.7	3.9	1.8
S&P 500 경기소비재	515.5	2.1	2.5	-1.8	-2.7
S&P 500 필수소비재	454.0	-0.1	1.0	5.9	2.6
S&P 500 헬스케어	681.3	1.4	2.6	-0.2	6.1
S&P 500 금융	296.3	1.3	0.7	2.5	0.5
S&P 500 IT	610.0	2.2	4.1	3.1	4.2
S&P 500 통신서비스	159.5	-1.2	5.5	9.7	2.6
S&P 500 유틸리티	211.2	-0.9	-3.6	3.7	9.3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8. 미국 주요 종목 등락률

종목명	종가 (USD)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BAIDU INC - SPON ADR	167.6	8.3	4.9	-2.8	-5.8
GOOGLE INC-CL C	552.7	6.2	5.2		
FACEBOOK INC-A	61.4	5.7	0.8	-13.3	12.3
PRICELINE GROUP INC/THE	1,197.1	5.3	-1.6	-8.9	3.0
AMAZON.COM INC	312.2	4.9	-7.4	-11.2	-21.7
HEWLETT-PACKARD CO	33.7	3.7	5.4	12.7	20.5
WALT DISNEY CO/THE	83.3	3.6	4.7	3.2	9.1
COMCAST CORP-CLASS A	52.0	3.5	1.2	1.6	0.0
VODAFONE GROUP PLC-SP	34.6	-5.0	-5.0	-16.0	-13.5
AT&T INC	35.3	-3.9	2.4	8.8	0.5
DIRECTV	83.6	-3.0	8.5	11.3	21.0
CATERPILLAR INC	104.0	-1.9	-1.2	6.9	14.6
WAL-MART STORES INC	75.6	-1.8			
MCDONALD'S CORP	102.0	-1.1	2.2	5.7	5.1
COCA-COLA CO/THE	40.6	-0.8	-0.3	8.2	-1.8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9. 미국 주요 채권 지표

주요 채권	종가(%)	수익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국고채 10년	2.53	0.9	-14.8	-20.6
국고채 5년	1.52	-3.0	-21.2	-2.0
LIBOR 3M	0.23	0.1	0.2	-0.5
EUR-LIBOR 3M	0.29	0.2	-1.0	3.1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0. 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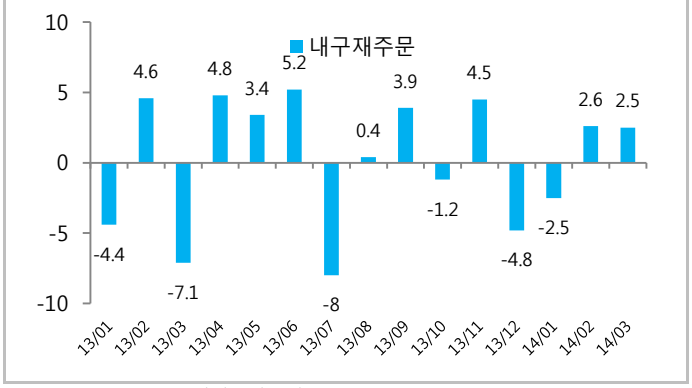
주요 환율	종가	통화가치 변동률(%) (1 주)	(1 개월)	(3 개월)
달러 인덱스	80.39	0.4	0.7	0.2
USD/EUR	1.363	-0.5	-1.6	-1.0
JPY/USD	101.97	-0.5	0.3	0.4
CNY/USD	6.24	-0.0	0.0	-2.2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1-2. 미국경제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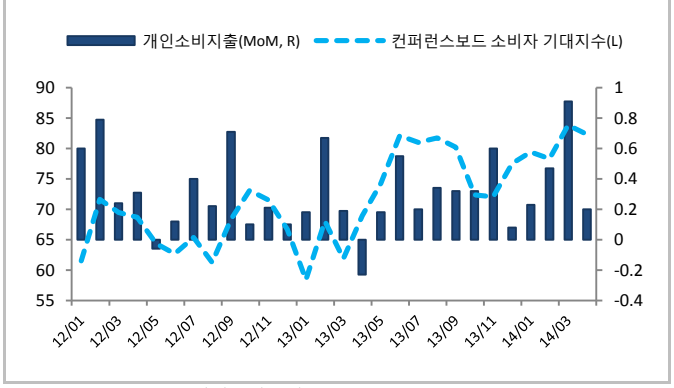
이번 주 발표될 주요 지표로는 미국의 설비 투자 지표로 활용되는 내구재 주문이 있다. 2월, 3월 모두 2.5%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고, 3월 지표가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주 27일 발표될 4월 내구재 주문은 4월 제조업 생산 부진으로 전월대비 0.7% 감소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조성돼 있지만, 내구재 주문에 대한 추세와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배경에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감소와 저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감소로 기업들의 현금 보유가 증가했고 이는 기업들 간의 M&A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미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자연히 내구재 주문 증가와 설비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M&A 로 기업 가치 상승, 시장 활성화로 주식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힐샤이어브랜즈의 피나클 푸드 인수, 화이자의 영국 제약 업체 아스트라제네카 인수 추진 등 기업 M&A 활성화 조짐이 금리 인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주식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배경을 지지해 준다.

Exhibit 11. 미국 내구재 주문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2. 미국 개인소비지출과 소비자기대지수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주요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되는 가운데 27일에는 미국 주식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은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되며 소폭 개선세가 기대된다. 이 지표는 30일 발표될 개인소비지출과 약 30%의 상관성을 갖고 있는데, 4월 소비자기대지수가 82.3로 전월대비 낮아 4월 개인소비지수 역시 전월 0.9% 상승에서 0.2% 상승으로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행지표인 5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 대비 0.7p 상승한 83으로 예상되고 있고 더불어 30일 발표될 미시건대기대지수도 82.8로 개선된 것으로 확정치를 보여, 향후 소비 시장은 긍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5월 서비스 PMI, 복합 PMI 가 발표될 예정이며 29일에는 1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는데, 한파 영향이 더 반영돼 전분기 대비 0.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속보치 0.1%를 하회하는 것이다. 단, 2분기 회복에 대해 투자자들은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 발표될 주택 관련 지표 개선 여부도 주목해야겠다.

Exhibit 13. 주간 경제 지표 발표 예정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기간	단위	지표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예정	2014-05-27	미국	내구재 주문	Apr	(%)	-0.70		2.60
예정	2014-05-27	미국	S&P/CS 20개 도시 전월비 주택가격 지수SA	Mar	(%)	0.70		0.76
예정	2014-05-27	미국	마킷 미국 종합 PMI	May P				55.60
예정	2014-05-27	미국	마킷 미국 서비스 PMI	May P		54.50		55.00
예정	2014-05-27	미국	소비자기대지수	May		83.00		82.30
예정	2014-05-27	미국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May		5.00		7.00
예정	2014-05-27	미국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	May		9.20		11.70
예정	2014-05-29	미국	GDP 연간화 QoQ	1Q S	(%)	-0.50		0.10
예정	2014-05-29	미국	개인소비	1Q S	(%)	3.10		3.00
예정	2014-05-29	미국	주요 개인소비지출 (전분기대비)	1Q S	(%)	1.30		1.30
예정	2014-05-29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May 24	(천)	318.00		326.00
예정	2014-05-29	미국	미결주택매매(전월대비)	Apr	(%)	1.00		3.40
예정	2014-05-30	미국	개인소득	Apr	(%)	0.30		0.50
예정	2014-05-30	미국	개인소비지수	Apr	(%)	0.20		0.90
예정	2014-05-30	미국	시카고 구매자협회	May		60.80		63.00
예정	2014-05-30	미국	미시간대 기대지수	May F		82.50		81.80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2-1. 유럽지역 Review

➢ 경제

지난 주 발표된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며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통화완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마킷 5 월 복합 구매관리자지수(PMI) 속보치가 53.9 를 기록하며 4 월의 54 를 하회했다. 서비스 PMI 보다는 제조업 PMI 가 부진하게 발표되며 복합지수의 부진을 이끌었다. 예상치 53.2 를 하회한 52.5 이며 4 월의 53.4 보다도 낮은 수치다. 국가별로는 유로존 경제 2 위 국인 프랑스의 경제가 둔화된 것이 부진을 이끌었다. 프랑스의 5 월 제조업·서비스업 복합 PMI 는 49.3 으로 4 월 50.6 에서 1 포인트 넘게 급락하며 기준선 밑으로 하락했다.

유로존 성장 엔진인 1 위 경제국 독일의 5 월 복합 PMI 는 4 월과 같은 수준인 56.1 을 기록했다. 지난 주 발표된 1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8%였다. 유로존 성장세가 아직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없앨 만큼 강하지 않아 6 월 5 일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완화정책을 제시할 기대감이 높아졌다. 독일 민간 경제연수소 IfO 5 월 기업 경기신뢰지수가 110.4 를 기록해 전달의 111.2 보다 낮아졌다. 당초 시장의 전망치 110.9 를 소폭 하회하면서 독일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일정 부분 예상에 수렴한 만큼 큰 악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5 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가 -7.1 을 기록하며 전월의 -8.6 에서 상승한 것은 물론 전망치인 -8.3 을 상회했다.

➢ 주식

지난 주 유로존 주식 시장은 유럽 의회 선거와 우크라이나 대선 추이를 주시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여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피치와 S&P 에서 스페인과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며 그리스 아테네 증시의 경우 7.6%의 큰 폭 상승세를 보였다. 단, 지수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했고, 의회 선거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대해 관망세를 보이기도 해 추가적인 상승세를 막아 Euro Stoxx 600 지수는 0.8% 상승에 그쳤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MSCI 유럽의 12M FWD PER 가 약 14 배로 과거 5 년 평균 11.2 배에 비해 높고, 지난 주 발표된 업종 대표 기업들이 실적 부진을 보이면서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없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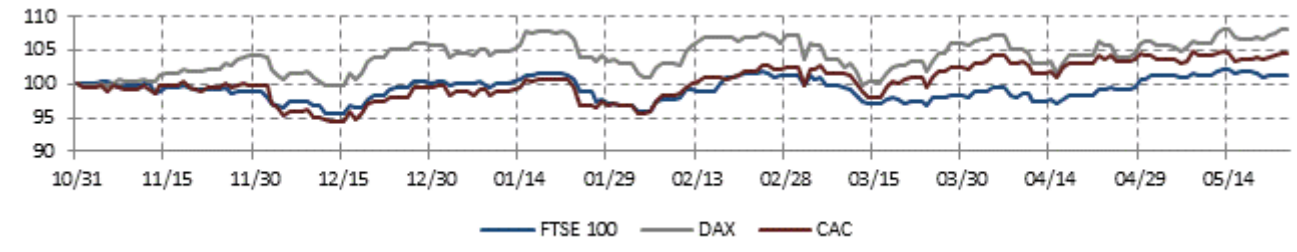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지난 주 유럽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부유럽 국가의 10 년 국채 금리가 두 달 만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이탈리아가 전주 대비 8.9bp 상승하는 등 상승 폭이 컸다.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반유럽연합 및 반 유로화 정서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그리스의 국채 금리는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급락한 것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전 주 대비 35.5bp 하락한 6.4%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3 주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FED 에서 역레포, 기간 예치금 등 출구 전략 정책 수단을 고려중인데 반해 ECB 에서는 통화완화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유로화 약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Exhibit 14. 지난 주 유럽 경제 지표 발표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기간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4-05-21	유로존	ECB 경상수지 SA	Mar	(십억)		18.80	21.90		-3.10
발표	2014-05-21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	May A		-8.30	-7.10	-8.60	1.20	1.50
발표	2014-05-22	프랑스	경기기대지수	May		94.00	94.00	94.00	0.00	0.00
발표	2014-05-22	프랑스	마킷 프랑스 종합 PMI	May P		50.50	49.30	50.60	-1.20	-1.30
발표	2014-05-22	프랑스	마킷 프랑스 제조업 PMI	May P		51.00	49.30	51.20	-1.70	-1.90
발표	2014-05-22	프랑스	마킷 프랑스 서비스 PMI	May P		50.40	49.20	50.40	-1.20	-1.20
발표	2014-05-22	독일	마킷/BME 독일 종합 PMI	May P		56.00	56.10	56.10	0.10	0.00
발표	2014-05-22	독일	마킷/BME 독일 제조업 PMI	May P		54.00	52.90	54.10	-1.10	-1.20
발표	2014-05-22	독일	마킷 독일 서비스 PMI	May P		54.50	56.40	54.70	1.90	1.70
발표	2014-05-22	유로존	마킷 유로존 제조업 PMI	May P		53.20	52.50	53.40	-0.70	-0.90
발표	2014-05-22	유로존	마킷 유로존 서비스 PMI	May P		53.00	53.50	53.10	0.50	0.40
발표	2014-05-22	유로존	마킷 유로존 종합 PMI	May P		53.90	53.90	54.00	0.00	-0.10
발표	2014-05-22	영국	GDP(전분기대비)	1Q P	(%)	0.80	0.80	0.80	0.00	0.00
발표	2014-05-22	영국	GDP (전년동기대비)	1Q P	(%)	3.10	3.10	3.10	0.00	0.00
발표	2014-05-23	독일	GDP SA 전기대비	1Q F	(%)	0.80	0.80	0.80	0.00	0.00
발표	2014-05-23	독일	GDP WDA 전년대비	1Q F	(%)	2.30	2.30	2.30	0.00	0.00
발표	2014-05-23	독일	수출 QoQ	1Q	(%)	0.60	0.20	2.60	-0.40	-2.40
발표	2014-05-23	독일	IFO 기업환경	May		110.90	110.40	111.20	-0.50	-0.80

Exhibit 15. 유럽 주요 증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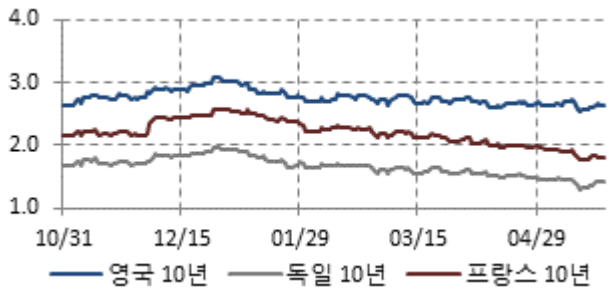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6. 유로화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7. 주요국 채권 금리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8. 유럽 주요국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WORLD	418.4	0.9	2.0	2.7	2.4
MSCI EMU	105.8	1.1	1.4	1.2	3.4
FTSE EUROTOP 100	2,774.9	0.2	3.0	2.0	4.0
Euro Stoxx 600	341.8	0.8	2.5	1.2	4.1
Euro Stoxx 50	3,203.3	1.0	1.8	1.7	3.0
영국 FTSE 100	6,815.8	-0.6	1.9	0.2	1.0
독일 DAX	9,768.0	1.4	3.9	1.1	2.3
프랑스 CAC 40	4,493.2	0.8	1.1	2.2	4.6
이탈리아 FTSE MIB	20,746.0	0.5	-3.2	1.7	9.4
스페인 IBEX 35	10,558.9	0.8	2.5	3.3	6.5
포르투갈 PSI 20	6,917.7	0.3	-5.7	-4.6	5.5
그리스 ASE	1,171.2	7.6	-4.3	-10.1	0.7
스위스 SPI	8,562.0	0.4	4.0	5.0	9.2
러시아 RTS	1,326.6	5.1	18.5	3.1	-8.1
터키 ISE 100	78,060.6	3.8	9.3	26.9	15.1
남아공 TOP40	44,894.8	1.9	2.4	5.5	8.2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9. 유럽 주요 종목 등락률

국가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USDbn)	수익률(%) (1 주)	(1 개월)
영국	VEDANTA RESOURCES PLC	소재	4.8	10.2	13.6
독일	RWE AG	유틸리티	23.9	8.4	7.7
프랑스	CAP GEMINI	IT	11.5	7.6	-0.9
독일	CONTINENTAL AG	경기소비재	46.2	7.3	-2.7
프랑스	RENAULT SA	경기소비재	27.8	6.8	-5.5
독일	E.ON SE	유틸리티	38.1	6.8	1.8
영국	GKN PLC	경기소비재	10.7	6.3	0.1
영국	KAZAKHMYS PLC	소재	2.0	6.3	12.4
영국	ASTRAZENECA PLC	헬스케어	91.9	-10.3	3.7
영국	BG GROUP PLC	에너지	69.6	-5.5	5.5
영국	VODAFONE GROUP PLC	통신서비스	91.7	-5.0	-4.7
프랑스	EDF	유틸리티	69.3	-4.8	-5.9
영국	WM MORRISON SUPERMARKETS	필수소비재	8.0	-4.8	2.4
영국	INTERTEK GROUP PLC	산업재	7.8	-4.0	-1.9
영국	ARCELORMITTAL	소재	25.6	-3.2	-4.9
영국	PEARSON PLC	경기소비재	15.7	-2.8	8.3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0. 유로화 환율 / 주요국 채권 지표

주요 환율/채권	종가(%)	변동률(%, bp)		
		(1 주)	(1 개월)	(3 개월)
USD/EUR	1.36	-0.5	-1.6	-1.0
영국 10년	2.6	7.1	-5.6	-13.9
독일 10년	1.4	8.3	-11.7	-26.6
프랑스 10년	1.8	3.1	-19.3	-45.5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1. 남유럽 채권 지표

주요국 채권	종가	변동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이탈리아 10년	3.2	8.9	2.9	-46.7
스페인 10년	3.0	3.2	-9.8	-57.1
포르투갈 10년	3.7	2.3	10.0	-111.5
그리스 10년	6.4	-35.5	31.3	-101.1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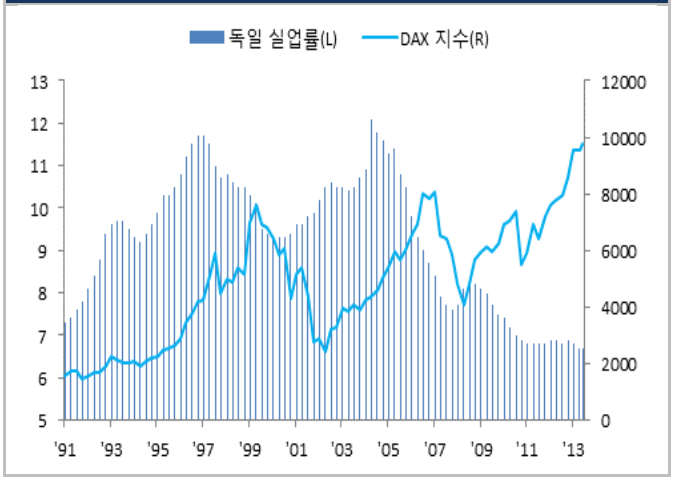
2-2.유럽지역 Preview

최근 유로존은 선진국의 정책적 스탠스와 뚜렷한 차이가 보이고 있다. BOE 통화정책회의 회의록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경제 회복 및 주택 시장 과열 등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ECB는 정책위원들의 디플레이션 경계 발언이 계속되며 6월 추가 완화조치 가능성 증가 기대감이 대두되고 있다. BOE와 FED와의 스탠스 차이는 유로화 약세를 부추기며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주 피치와 S&P에서 그리스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의회 선거에서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등 정치적 리스크보다는 경제 펀더멘털의 회복에 집중하는 모습이 기대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자본조달비용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내려갔으며 이는 유럽 재정위기가 끝났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는 등 남유럽 지역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해 최근 조정을 받은 증시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hibit 22 남유럽 국가 대표 지수 상대 수익률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3 독일 실업률과 DAX 지수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이번 주 발표될 유로존의 경제 지표는 제한되는 가운데 독일의 4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3월 0.1% 상승에서 소폭 개선되는 수치이며 전년 대비로는 1.5% 증가해 소비 회복세를 지지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8일 발표될 5월 실업률은 6.7%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지 않겠지만 역사상으로 낮은 수준이며 5월 실업자수가 전월 대비 감소하며 고용 회복에 따른 독일 경기 개선을 보여줄 것이다. 29일에는 스페인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된다. 소비와 기업 투자 증가로 전분기 대비 0.4%, 전년동기 대비 0.6%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결과를 보이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반응한 만큼 크게 오차를 보이지 않는 한 시장을 뒤흔들 만한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은 `뱅크 홀리데이(Spring Bank Holiday)`로 26일 월요일 휴장한다.

Exhibit. 주간 경제 지표 발표 예정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기간	단위	지표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예정	2014-05-27	프랑스	소비자기대지수	May		85.00		85.00
예정	2014-05-27	독일	소매판매 (전월대비)	Apr	(%)	0.20		-0.70
예정	2014-05-28	프랑스	소비자 지출 MoM	Apr	(%)	0.50		0.40
예정	2014-05-28	프랑스	PPI 전년비	Apr	(%)	-0.90		-2.00
예정	2014-05-28	독일	실업자 변동 (단위:천)	May	(천)	-15.00		-25.00
예정	2014-05-28	독일	실업률	May	(%)	6.70		6.70
예정	2014-05-28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	May F		-7.10		-7.10
예정	2014-05-28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May		0.30		0.27
예정	2014-05-29	프랑스	전체 구직자	Apr	(천)	3,354.70		3,349.30
예정	2014-05-29	프랑스	구직자 순변동	Apr		5.50		1.60
예정	2014-05-30	영국	GfK 소비자 기대지수	May		-2.00		-3.00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3-1. 아시아지역 Review

➢ 경제

중국 5 월 HSBC 제조업 PMI 발표치는 49.7 을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48.3 과 전월의 48.1 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지난해 12 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여전히 경기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인 50 을 밑돌았지만 예상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무부가 지난 16 일 발표한 1~4 월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대비 5% 증가한 403 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4 월 중국 70 개 주요 도시 중 신규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도시는 44 개로 4 월의 56 개 도시 대비 감소했다. 증감회는 오는 6 월부터 연말까지 총 100 개 기업의 IPO 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약 300~400 개 IPO 기업 수를 밑도는 수준이다.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따르면 1/4 분기 말 기준 실업률은 4.08%로 전년의 4.05%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일본 3 월 기계수주는 전월 대비 19.1% 상승하여 예상치 5.8%와 이전치 -8.8%를 크게 상회했다. 3 월 전체산업 활동지수는 전월 대비 1.5% 상승해 예상치 1.6%를 소폭 하회했지만 이전치 -1.1% 대비 대폭 개선되었다. 일본 4 월 무역수지는 8089 억엔의 적자를 기록해 예상치 6463 억엔 적자보다 크지만 지난달 1 억 4463 억엔 적자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했다. 이는 22 개월 연속 적자로, 1979 년 통계 집계 이후 최장 기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5 월 마킷/JMMA 일본 제조업 PMI 발표치는 49.9 로 전월의 49.4 대비 소폭 상승했다.

➢ 주식

지난 한 주간 중국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 중국 상해종합 증시는 전주 대비 0.4%, 항생지수는 1.1% 각각 상승했다. 지난 22 일 발표된 중국 5 월 HBSC 제조업 PMI 는 전문가 예상치 48.3 과 전월의 48.1 을 크게 상회해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으며 증감위가 발표한 IPO 신청 기업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던 점도 주식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 및 경기 긴축 우려는 중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 주 NIKKEI225 는 전주 대비 2.6% 상승했다. 미 증시 상승과 엔화 약세는 일본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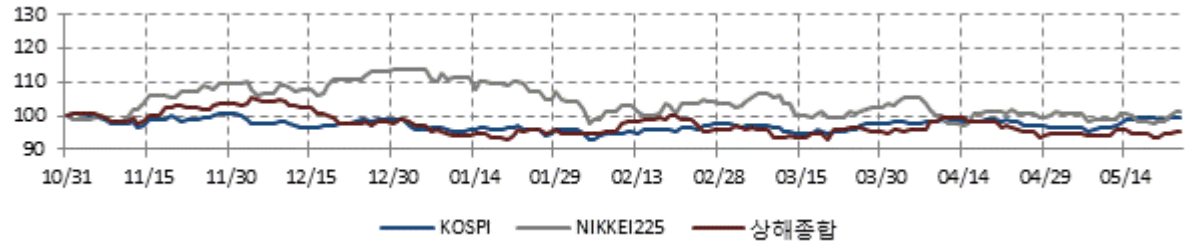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미국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럽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 기대가 반영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고, 엔-달러 환율도 101.97 지난 한 주간 0.46% 약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진행되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024.75 로 지난 한 주간 0.06% 소폭 약세를 보이는데 그쳤다. 위안화-달러 환율은 6.24 으로 전주 대비 0.04% 하락해 큰 변동이 없었다.

Exhibit 24. 아시아 경제 지표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기간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4-05-19	일본	기계수주 전월비	Mar	(%)	5.80	19.10	-8.80	13.30	27.90
발표	2014-05-20	한국	PPI 전년비	Apr	(%)		-0.30	-0.50		0.20
발표	2014-05-20	일본	선행지수 CI	Mar F			107.10	106.50		0.60
발표	2014-05-20	일본	동행지수	Mar F			114.50	114.00		0.50
발표	2014-05-20	일본	전국 백화점 판매 YoY	Apr	(%)		-12.00	25.40		-37.40
발표	2014-05-20	일본	도쿄 백화점 판매 YoY	Apr	(%)		-10.80	25.50		-36.30
발표	2014-05-20	일본	공작기계 수주 전년비	Apr F	(%)		48.70	48.80		-0.10
발표	2014-05-21	한국	단기 대외채무	1Q	($십억)		123.80	112.80		11.00
발표	2014-05-21	일본	무역수지	Apr	(십억)	-646.30	-808.90	-1,446.30	-162.60	637.40
발표	2014-05-21	일본	무역수지 조정	Apr	(십억)	-633.00	-844.60	-1,714.20	-211.60	869.60
발표	2014-05-21	일본	수출 YoY	Apr		4.40	5.10	1.80	0.70	3.30
발표	2014-05-21	일본	수입 YoY	Apr		1.20	3.40	18.10	2.20	-14.70
발표	2014-05-22	한국	할인점 매출 (전년대비)	Apr	(%)		-4.10	-3.70		-0.40
발표	2014-05-22	한국	백화점 매출 (전년대비)	Apr	(%)		-1.40	-1.10		-0.30
발표	2014-05-22	일본	마킷/JMMA 일본 제조업 PMI	May P			49.90	49.40		0.50
발표	2014-05-22	중국	HSBC 중국 제조업 PMI	May P		48.30	49.70	48.10	1.40	1.60

Exhibit 25. 아시아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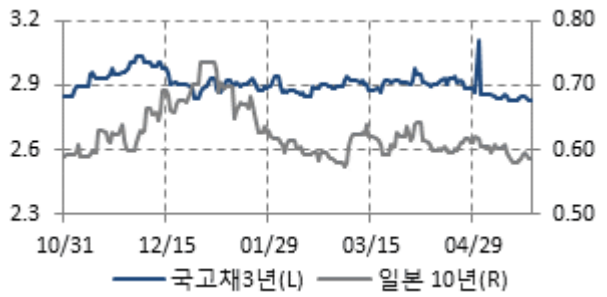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6. 원화환율추이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7. 한국국고채 3 년 VS 일본 10 년추이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8. 아시아주요국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Asia Pacific	140.9	0.9	2.0	2.2	-0.3
MSCI EM	1,042.9	1.1	5.0	9.1	4.0
MSCI EM Asia	464.4	1.1	4.2	7.2	4.0
한국 KOSPI	2,017.2	0.2	2.3	2.4	0.3
일본 NIKKEI 225	14,462.2	2.6	0.2	-3.4	-11.2
중국 상해종합	2,034.6	0.4	-0.1	-0.3	-3.8
홍콩 항생	22,965.9	1.1	3.3	2.4	-1.5
대만 가권	9,008.2	1.3	2.7	4.7	4.6
호주 ASX 200	5,492.8	0.3	-0.7	1.0	2.6
뉴질랜드 NZX 50	5,151.4	-0.7	-0.1	3.6	8.7
인도 SENSEX 30	24,693.4	2.4	8.8	17.7	16.6
싱가포르 STI	3,278.0	0.5	0.3	6.1	3.5
태국 SET	1,396.8	-0.6	-0.8	7.1	7.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4,973.1	-1.2	1.5	9.7	16.4
필리핀 PSEi	6,811.3	-0.1	1.9	7.7	15.6
베트남 호치민	541.5	2.3	-6.5	-8.2	7.3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9. 아시아주요종목등락률

국가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USDbn)	수익률(%) (1 주)	(1 개월)
일본	ASTELLAS PHARMA INC	헬스케어	28.9	8.4	17.1
일본	YAHOO JAPAN CORP	IT	25.2	6.6	-8.3
일본	SEVEN & I HOLDINGS CO LTD	필수소비재	35.6	6.1	6.2
홍콩	CHINA RESOURCES ENTERPRISE	필수소비재	7.4	5.5	8.1
중국	SHANGHAI PHARMACEUTICALS-A	헬스케어	5.2	4.8	-5.4
일본	HONDA MOTOR CO LTD	경기소비재	62.2	4.3	2.0
일본	INPEX CORP	에너지	21.4	4.3	3.8
한국	KIA MOTORS CORPORATION	경기소비재	23.9	4.1	4.1
중국	ZHEJIANG CHINT ELECTRICS-A	IT	3.3	-4.4	-15.1
홍콩	BELLE INTERNATIONAL HOLDINGS	경기소비재	8.9	-4.1	-3.3
홍콩	CHINA UNICOM HONG KONG LTD	통신서비스	35.5	-3.7	11.4
한국	DONG-A SOCIO HOLDINGS CO LTD	헬스케어	0.5	-3.6	-2.8
한국	KB FINANCIAL GROUP INC	금융	13.5	-3.4	-1.2
한국	KOREA GAS CORPORATION	유틸리티	5.5	-3.2	-3.0
일본	MIZUHO FINANCIAL GROUP INC	금융	46.4	-3.0	-2.0
홍콩	POWER ASSETS HOLDINGS LTD	유틸리티	18.6	-2.7	0.0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0. 아시아주요채권지표

주요채권	종가(%)	수익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한국 국채 5년	3.08	0.5	-11.0	-9.4
일본 10년	0.59	0.7	-2.6	-0.4
중국 10년	4.17	-2.5	-18.0	-31.8
호주 10년	3.78	6.7	-18.0	-39.2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1. 달러환율추이

주요환율	종가	통화가치변동률(%)		
		(1 주)	(1 개월)	(3 개월)
KRW/USD	1,024.75	-0.06	1.46	4.86
JPY/USD	101.97	-0.46	0.28	0.41
CNY/USD	6.24	-0.04	0.03	-2.22
AUD/USD	1.08	-1.44	-0.65	2.81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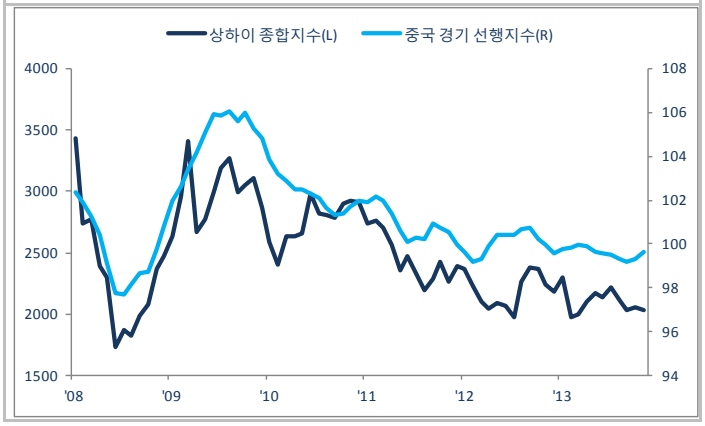
3-2. 아시아지역 Preview

➢ **중국 & 일본**

지난 21 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 4 회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정상 회의 참석 차 중국을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10 년 넘게 끌어온 4000 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극적으로 타결해 양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다음날 중국 우루무치에서 대규모 폭탄 테러가 일어나 31 명이 사망하고 94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되며,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일부 중국 소수민족 자치구에 대한 정치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주 발표된 5 월 중국 HSBC 제조업 PMI 는 49.7 로 예상치 48.3 과 직전치 48.1 을 모두 크게 상회해 중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나 여전히 중국 부동산 경기는 침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주 29 일~31 일 발표되는 중국 4 월 경기선행지수가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할지 여부가 향후 중국 경기 회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중국 4 월 경기선행지수는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상승폭은 크지 않고 기준선인 100 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돼 강한 경기반등으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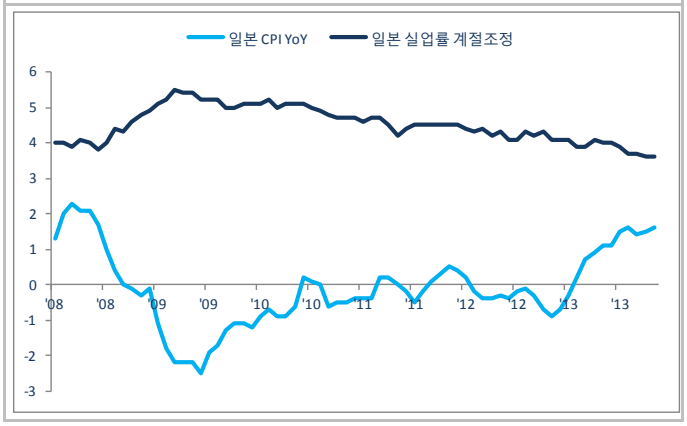
일본은 4 월 소비세율 인상 이후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BOJ 는 기업 수익 호조에 따라 고정투자가 늘었고, 민간 소비와 주택 투자 역시 고용과 소득 증가에 힘입어 회복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주 발표된 3 월 기계수주, 3 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4 월 무역수지 모두 전월 대비 대폭 개선세를 보였다. 일본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냄에 따라 BOJ 는 기존의 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BOJ 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자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일본 경제는 선진국의 글로벌 경제 회복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hibit 32. 상하이 종합지수 vs. 중국 경기 선행지수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3. 일본 CPI YoY vs. 일본 실업률 계절조정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4. 주간 경제 지표 동향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기간	단위	지표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예정	2014-05-27	한국	소비자 기대지수	May				108.00
예정	2014-05-29	일본	소매판매 (전월대비)	Apr	(%)	-11.60		6.30
예정	2014-05-29	중국	선행지수	Apr				99.63
예정	2014-05-30	한국	광공업생산 YoY	Apr	(%)	2.90		2.70
예정	2014-05-30	일본	실업률	Apr	(%)	3.60		3.60
예정	2014-05-30	일본	전국 CPI (전년대비)	Apr	(%)	3.30		1.60
예정	2014-05-30	일본	광공업생산 MoM	Apr P	(%)	-2.00		0.70
예정	2014-05-30	일본	자동차 생산 YoY	Apr	(%)			14.00
예정	2014-05-30	일본	주택착공건수 전년비	Apr	(%)	-8.30		-2.90
예정	2014-06-01	한국	수출 YoY	May	(%)			9.00
예정	2014-06-01	한국	수입 YoY	May	(%)			5.00
예정	2014-06-01	한국	무역수지	May	($백만)			4,462.00
예정	2014-06-01	중국	제조업 PMI	May		50.70		50.40
예정	2014-06-01	한국	외환보유고	May	($십억)			355.85

➢ **한국**

지난 주 코스피는 외국인의 1 조원이 넘는 주식 순매수에 힘입어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워험자산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외국인들이 신흥국 투자 비중을 늘려 코스피는 전주 대비 0.2% 상승해 2017.2 로 마감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기관 및 개인의 매도세에 코스피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금주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증시는 2000 선에 안착하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오는 6 월 초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면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 중국의 5 월 HSBC 제조업 PMI 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으며 조만간 중국 당국에서 발표할 제조업 PMI 예비치 또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글로벌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가 아직 지속되고 있어 내수업종 및 서비스업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Exhibit 35. 증시주변자금현황

(십억원)	Close	1W(△)	1M(△)	3M(△)	6M(△)	YTD(△)
고객예탁금	14,609.0	-167	-370	1,053	58	397
국내주식형펀드	81,213	-560	-1,155	-3,254	-2,657	-4,165
신용융자(KSE+KOSDAQ)	4,909	12	76	535	395	726
MMF	78,399	24	-100	-6,344	1,326	10,673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36. 투자주체별매매동향

(누적,KSE+KSQ,십억원)	주간	월간	3 개월	6 개월	YTD
외국인	1,078.2	1,242.1	4,035.4	307.3	1,555.3
기관투자가	-692.6	-1,112.1	-2,426.3	2,279.0	-1,394.1
(연기금)	52.0	245.1	1,542.9	3,835.2	2,711.9
개인	-366.8	-134.4	-1,071.1	-1,239.0	250.9
기타	-18.8	4.4	-538.1	-1,347.4	-412.2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37. 글로벌증시대비국내증시변동

섹터	주간수익률(%)			투자자매매동향 (5 일누적,십억원)		
	한국	MSCIACWI	편차	기관	외국인	개인
전체	0.0	0.9	-0.9	-759.1	1,126.8	-347.3
에너지	0.2	0.6	-0.4	-36.8	-2.8	27.8
소재	1.0	0.4	0.5	33.6	98.0	-124.5
산업재	-0.5	0.7	-1.1	-81.2	63.4	21.6
경기소비재	0.3	1.9	-1.5	-255.0	267.0	-9.0
필수소비재	0.9	-0.3	1.2	35.2	9.3	-43.3
의료	-1.3	0.8	-2.1	-28.5	13.7	8.8
금융	-0.9	0.9	-1.8	-151.1	208.1	-44.6
IT	0.1	2.0	-1.9	-205.7	414.5	-202.5
통신서비스	0.3	-0.4	0.7	-18.8	18.6	4.9
유틸리티	-2.2	0.5	-2.7	-50.7	37.0	13.6

Source:IBES,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38. 주간투자주체별주요순매수종목

주간기관순매수		주간외국인순매수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NAVER	73.3	삼성전자	305.5
BGF리테일	55.4	SK하이닉스	100.5
삼성엔지니어링	36.3	기아차	94.8
LG생활건강	36.0	POSCO	47.9
아모레퍼시픽	29.4	현대차	43.5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39. 주간투자주체별주요순매도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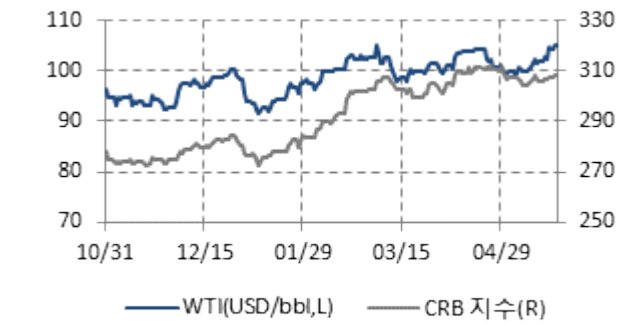
주간기관순매도		주간외국인순매도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삼성전자	-87.1	아모레퍼시픽	-33.6
현대차	-80.1	삼성전자우	-29.8
SK하이닉스	-64.6	삼성SDI	-29.5
KB금융	-64.4	삼성중공업	-27.6
엔씨소프트	-41.5	LG생활건강	-27.5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4.원자재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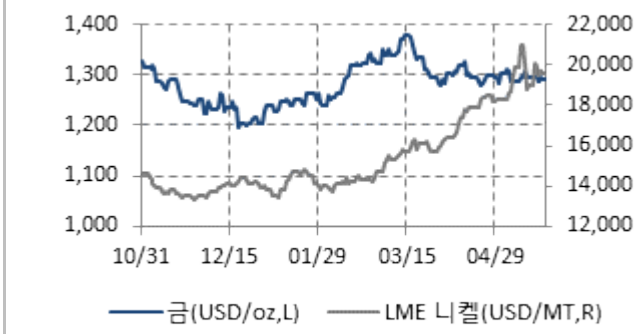
WTI 는 재고 감소 소식에 가격이 급등했다. WTI 유가는 지난 한 주간 2.9% 상승해 배럴당 105.0 달러로 마감했다. 금값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별로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소폭 하락해 지난 한 주간 0.1% 하락해 온스당 1291.7 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중국 제조업 지표 호조에 구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구리 가격은 지난 한 주간 0.9% 상승해 톤당 6918.8 달러로 마감되었다. 니켈 가격은 지난 한 주간 가격이 3.0% 대폭 상승한 톤당 19600 달러로 마감되었다. 알루미늄은 톤당 1814.5 달러로 지난 한 주간 2.5% 상승했다. 주요 곡물인 밀과 옥수수 가격은 지난 한 주간 각각 3.2%, 1.1% 하락했고 대두 가격은 3.4%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주 대비 2.4% 상승해 589.9 를 기록했다.

Exhibit 40. 원유(WTI)와 CRB 상품지수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41. 금과 LME 니켈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42. 옥수수와대두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43.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와 낸드 가격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44. 주요원자재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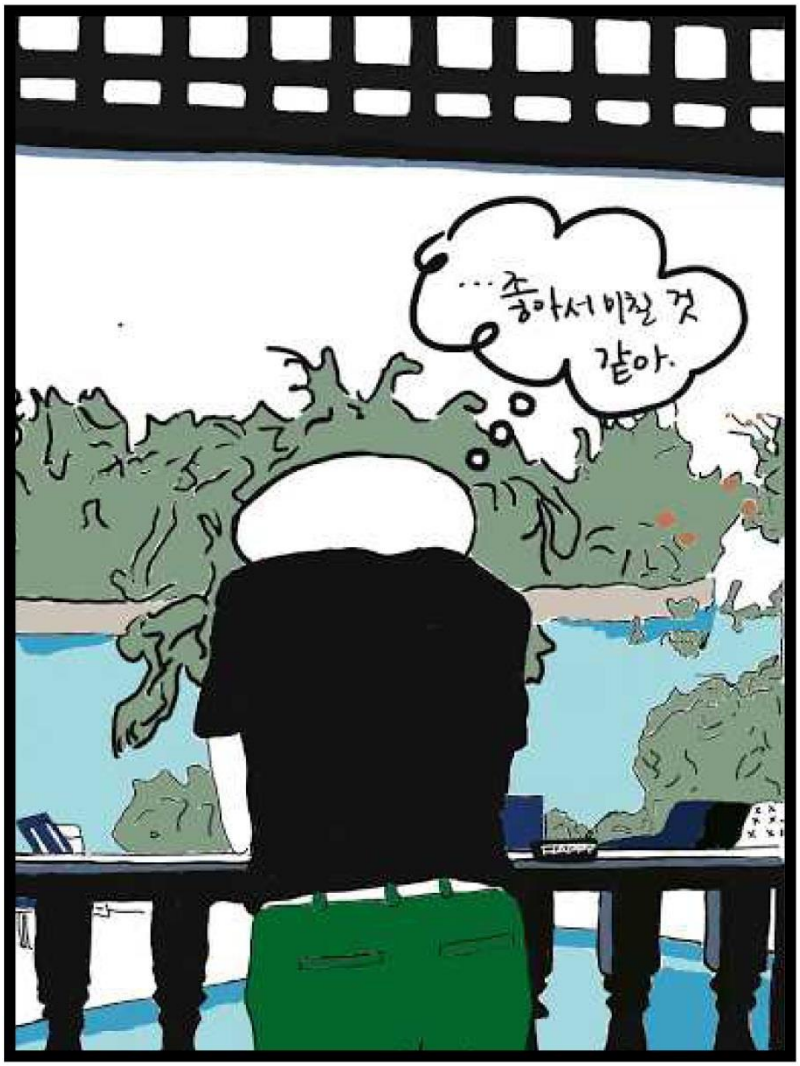
주요원자재	종가 (USD)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WTI(NYMEX)	105.0	2.9	3.2	2.4	6.6
Brent(ICE)	110.5	0.7	1.6	1.7	1.4
천연가스(NYMEX)	4.4	-0.2	-7.2	-7.7	7.1
금(NYMEX)	1,291.7	-0.1	0.5	-2.4	7.3
은(CME)	19.4	0.5	-0.3	-11.1	-0.1
구리(LME)	6,918.8	0.9	3.7	-3.3	-6.0
아연(LME)	2,084.0	0.9	1.2	2.2	1.4
니켈(LME)	19,600.0	3.0	6.6	36.4	41.0
알루미늄(LME)	1,814.5	2.5	-3.2	2.5	0.8
CRB 상품지수	308.3	0.8	-0.8	2.2	10.0
밀(CBOT)	652.5	-3.2	-4.4	7.1	5.8
옥수수(CBOT)	478.0	-1.1	-6.2	3.3	9.4
대두(CBOT)	1,515.5	3.4	3.5	12.7	19.8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589.9	2.4	3.1	4.5	10.3
NAND 32Gb MLC	3.1	0.0	-1.3	-2.8	-2.8
DDR3 2G 1333MHz	2.3	-0.4	1.8	-9.6	-8.9
Baltic Dry Index	964.0	-6.1	-0.3	-21.1	-57.7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2014LeadingInvestment&SecuritiesCo.Allrightsreserved

쉬어가기 코너

겸득생각



가끔 나는 잠들기 전 휴양지에서 쉬는 상상을 하곤 한다.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떠올린 탓인지 이제는 장면 하나하나가 세세하여 마치 이미 가본 듯하다. 가령 늦잠을 잔 뒤 멍하니 발코니에 서서 리조트의 풍경을 보며 피우는 담배의 향이 또렷하게 떠오를 정도로.

그래서 나는 또 굳이 갈 필요는 없겠다, 하고 생각하게 된다.

상상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안전한 데다가 이제는 기대만큼 대단한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 나이가 됐기에.

어쩌면 여행의 즐거움을 오롯이 소유할 수 있는 순간은 여행가방을 챙기는 때뿐일지도 모를 일이다.